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2016년 4월 20일(수), 오후 2~4시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장 은 정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부터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 교육/행사마당 → 교육자료실**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발 행 **국립김해박물관**

(50911) 경남 김해시 가야의 길 190(구산동 232)

국립김해박물관

TEL / 055)320-6881~2

<http://gimhae.museum.go.kr>

인 쇄 (주)다원이엔씨 / 055-321-6400

I . 머리말

일제강점기 조사 사업의 결과로 남겨진 유리건판 사진은 전쟁과 도시화 그리고 각종 정비 및 수리 목적으로 변형된 현재 고구려 유적의 옛 모습을 담고 있는 사료로서 가치가 높다. 일제강점기 고구려 유적 조사는 1910년 중국 집안 일대와 북한 평양 일대에 대한 유적 조사를 시작으로 야쓰이 세이이치(谷井濟一),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도리이 류조(鳥居龍藏), 이마니시 류(今西龍), 후지타 료사쿠(藤田亮策), 고이즈미 아키오(小泉顯夫), 오바 쓰네기치(小場恒吉), 우메하라 스에지(梅原末治) 등 다수의 일인 학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졌다.

초기 고적조사는 환인, 집안, 평양 등 고구려의 도읍지를 중심으로 도성의 구조와 시설, 관련 유적 등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지표조사나 시굴 조사의 성격이 강했다. 그에 비해 1931년 평양에 조선고적연구회 평양 연구소가 설치된 이후에는 고구려 고분과 절터, 성곽 등에 대한 발굴 조사가 증가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조사 초기부터 꾸준하게 평양 일대를 중심으로 한 벽화 고분에 대한 조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이 때 제작된 벽화 모사도는 고분 벽화가 세상에 알려진 이후 지난 100년간 심각한 훼손을 거쳐 온 고구려 벽화의 원형에 가까운 모습을 전하는 중요한 역사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조사 당시 작성된 삽화와 도면 등이 함께 전하고 있어 유리건판 사진과 함께 남겨 당시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 중인 유리건판 사진과 관련 자료, 벽화 모사도 등을 기본으로 하면서 도성과 무덤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문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고구려의 문화

1. 도성

국가의 출현은 도성의 축조와 맥을 같이 한다. 고구려는 도성과 주요 교통로에 수백 개의 성(城)을 축조하였다. 고구려인은 절벽과 가파른 산등성이 등 험준한 지세를 이용해 산성을 쌓아 비교적 적은 공력으로 방어력을 최대로 증대시켰다. 산성과 대비되는 평지성은 도성 지역에 주로 축조되었다. 군사적, 방어적 성격이 강한 산성에 비해 평지성은 거주 기능이 뛰어나 다양한 정치적,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기에 유리하였다. 고구려 도성의 특징은 평지성과 산성이 짝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평시에는 평지성에 거주하다가 전쟁이나 위급 시에는 산성으로 옮겨 가 대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점이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고구려의 두 번째 도읍이었던 집안 지역이다. 초기의 도성이 산지와 하천 등의 지형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는 곳에 축조되었다면, 집안 천도 이후로는 배산임수 지형을 택하여 평지에 소규모 평지성을 구축해 배후의 산성과 조합을 이루도록 운영하였다. 이후 옮겨간 평양 지역의 마지막 도성인 평양성은 이를 더욱 발전시켜 평지성과 산성을 결합한 대규모의 평산성을 조성하여 내부에 대규모 인구를 수용하고 다양한 시설들을 아우를 수 있는 시가지를 함께 계획하였다.

고구려의 첫 번째 도성인 흘승골성으로 비정되는 환인 지역의 오녀산성은 성벽 대부분에 자연 절벽을 그대로 이용하고 남벽과 동벽의 남단 일부만을 돌로 축조하였다. 성 내부에서는 신석기시대에서부터 고구려 전기, 금(金)에 해당되는 문화층이 발견되었고 고구려 전기에 해당되는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다. 유리건판 사진 중에는 당시 환인 지역의 전경과 주변 유적, 성 내부 시설 등을 알 수 있는 사진들이 포함되어 있어 환인담 건설과 유적 정비로 인해 변해 버린 현재 모습 이전 고구려 초기 도성의 모습을 전하고 있다. 또한 조사 당시 세밀하게 그린 성벽의 삽화는 당시의 모습을 보다 상세히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 있다.

평지성과 산성이 조합된 고구려 특유의 도성 구조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집안 지역에서 이루어진 조사는 석축 평지성인 국내성과 산성자산성으로 알려진 환도산성, 대규모로 조성된 산성하 고분군을 비롯해 성 내외부 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는 유리건판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도산성과 주변 고분군 전체를 파노라마 형태로 촬영한 사진들과 같은 구도로 그려진 삽화 등은 이채롭다.

평양 지역 도성에 대한 조사는 427년에 천도한 초기의 평양성이 위치한 평양 동부지구의 청암리 토성, 안학궁성지, 대성산성과 586년 천도한 장안성, 현재 평양 서부지구의 평양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유리건판 사진 역시 외부의 유적 전경과 내부 시설, 그리고 출토 유물이 주가 되며, 대동강 이남에서 양각도와 외성 일대를 촬영한 평양성의 항공 사진도 포함되어 있다. 고구려 도성이 가지고 있던 산성과 평지성의 기능을 통합하여 만든 평양성은 최근까지도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1935년에는 고이즈미 아키오가 성벽과 내성 및 중성의 문지를 시굴조사 하였다. 그런 까닭에 평양성에 대한 유리건판 사진은 초기부터 성곽 시설 뿐 아니라 성 내부의 주요 건축물들에 대한 기록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지정문화재로 등록한 이들의 관리, 정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성 내부 건축물 대부분이 조선시대의 것이기는 하나 일부 기초 성돌이나 초석에서 고구려적 요소들이 확인되고 있는 데다가, 현재의 성 내부 시설이 전쟁과 개발로 모습이 변화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의 조사 기록은 유용한 자료이다. 또한 평양성을 쌓을 때 공사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한 명문 성각을 촬영한 사진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사구간과 공사 책임자, 성을 쌓기 시작한 연대 등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여러 조사에 따르면, 고구려의 성 내부에는 여러 건물과 정비된 도로 등 다양한 시설이 있었다. 도성의 안과 밖으로 우물, 교량 등의

시설이 설치되었고 대규모 사원도 조성되었다. 귀족이 거주하는 집은 사랑채와 안채로 이루어지며, 마구간, 차고, 부엌, 다락창고, 방앗간, 고깃간 등의 부속 시설과 잘 꾸며진 정원을 가지고 있었다. 주요 건물은 기와로 지붕을 덮었고 난방 시설로는 부분 온돌을 설치하였으며, 일상생활에서 평상이나 좌상을 사용하였는데 방안에서 신발을 벗는 습관이 있었다. 디딜방아로 곡식을 찧었고, 가루로 내어 시루에 쪄 먹었다. 가축 뿐 아니라 사냥으로 잡은 짐승로부터 육류를 섭취하였다. 아래층에 기둥만 있고 본체가 위에 있는 고상식(高床式) 구조의 다락창고에 곡식을 보관하였다. 부엌에서 조리한 음식을 소반에 받쳐 들고 안채나 사랑채로 가서 상차림하였는데, 주인과 손님의 상을 따로 차렸다.

2. 무덤

고대 사회에서는 대형 고분을 축조함으로써 죽은 이가 삶의 영역 안에서 소유했던 지배적 힘과 권위를 죽음의 공간 속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고구려 무덤은 강돌이나 다듬은 산돌을 쌓아 만든 적석총과 커다란 판석으로 무덤방을 만들고 흙을 덮어 만든 석실봉토분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고대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그러하듯 통치 질서를 공고히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지배층의 무덤 축조에 많은 사회적 공력이 투입되었다. 그리하여 통치 권력의 위세를 드러낼 수 있는 규모와 각종 구조물, 부장품 등을 갖춘 무덤들이 축조되었는데, 집안 일대에 군집을 이루어 분포하고 있는 대형 적석총들은 이를 잘 보여 주는 예이다. 이러한 대형 무덤을 축조하는 행위는 죽은 이를 위한 것 뿐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권위와 힘을 대외적으로 과시함으로써 지배 질서를 더욱 강화하는 수단이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무덤은 오늘날 중국의 환인, 집안시 일대와 평양을 중심으로 한 평안도 및 황해도 일원에 분포하고 있다. 집안 일대에만 13,000여기가 확인되었으나, 상당수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상태이며 내부 구조와 시설 등에 대한 충분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구려 무덤의 변천은 기원전 3세기부터 3세기까지 적석총이 축조되어 중국과 구별되는 고구려 무덤의 독자성이 발현, 유지되는 시기로부터 시작된다. 무기단식에서 기단식, 계단식으로 외형상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정형성을 띠어가는 이 시기 적석총의 변화는 고구려가 중국과 구별되는 문화 전통을 가지고 독자적으로 국가를 형성하고 성장해 갔던 과정을 보여 준다. 이후 4~5세기대에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유행하였던 합장용의 석실봉토분과 무덤벽화라는 새로운 무덤 형식을 받아들여 기존의 적석총과 공존, 결합하면서 여러 형식의 무덤이 병존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규모나 묘역 시설 등에서 월등한 초대형 적석총이 축조되어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으며, 다양한 내용의 벽화분은 동아시아에서 고구려의 높은 정치, 문화적 수준을 잘 보여준다. 6세기 이후로는 앞 시기에 받아들인 석실봉토분이 고구려 전 영역에서 축조됨으로써 묘제에서 제일성이 확립된 시기이기도 하다.

고구려 유적 조사는 초기부터 고구려 무덤, 특히 벽화 무덤에 대한 조사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유리건판 사진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많다. 다양한 고구려 벽화 속에는 죽음에 직면해 사후 세계를 바라보는 고구려인의 내세관과 함께 현실 생활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 영토확장 과정 중 다양한 문화 접촉을 통해 형성된 고구려 무덤의 벽화 예술은 무덤 내부의 장식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유한성에 직면했던 고구려인들이 죽음 이후 세계와 관련해 던졌던 의문과 그들의 해답을 형상화한 것이었다.

벽화는 시기와 지역에 따라 여러 주제를 담고 있는데 생활풍속, 장식무늬, 사신도(四神圖)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현세에서 생활했던 공간과 인물, 생활 속 여러 장면을 묘사한 생활풍속도는 고구려인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이들은 스스로의 모습을 그려 무덤 속 공간 안에 함께 두었는데, 무덤칸 모서리와 천정고임 일부에 기둥·도리·보 등 목조(木造) 건물의 뼈대를

그려 무덤 안을 생전의 주택처럼 꾸미고, 그 안에 주인 부부가 시중받는 장면, 대행렬에 둘러싸여 출행하는 장면, 사냥하는 장면, 연회를 베풀고 가무와 놀이를 즐기는 장면 등이 그렸다.

벽화 속의 인물들은 신분과 계급 정도에 따라 인물의 크기나 옷차림 등이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 이러한 생활풍속도는 죽은 후의 세계에서도 죽기 전 세계와 같은 생활이 계속된다는 고구려인들의 사후관을 보여 주는 것으로, 내세에서도 삶이 동일한 방식으로 풍요롭게 지속되기 바라는 마음이 표현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무덤 벽화에 등장하는 인물은 고구려 문화의 두 중심지였던 평양과 집안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지역색을 드러낸다. 평양일대 초기 무덤벽화 속의 인물들은 맞깃이나 오른깃에 소매와 통이 넓은 옷차림을 하고 있다. 생김새 또한 안악 3호분(357년)의 여주인과 시녀들의 얼굴이 전반적으로 둥글고 볼과 턱이 풍만한 것에 비해 덕흥리 고분(408년)의 시녀들은 가름한 얼굴형에 주름치마를 입고 있다. 이는 쌍영총이나 수산리 고분 벽화 속에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행렬하는 고구려 여인들의 모습으로 완성되어 갔다. 평양지역보다 벽화 무덤이 늦게 출현한 집안 지역의 벽화에서는 사람들 대부분이 점무늬가 있는 원깃 옷차림에 저고리와 바지를 남녀 모두가 입고 있다. 옷여밈을 왼쪽으로 두는 관습은 이른바 기마문화에 익숙한 사회에서 확인되는 북방문화적 요소이다. 각저총과 무용총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차림새가 이처럼 같은 시기 평양지역과 다르나, 생김새만은 균살없이 깔끔한 얼굴선을 가진 전형적 고구려인들이다. 무덤 주인 부부의 표현에서도 두 지역은 차이를 보인다. 평양 지역 벽화에서 이들이 신상(神像)과 같은 자세로 근엄하게 앉아 정면을 바라보며 있다면, 집안지역의 무덤주인 부부는 일상 생활 속에서 차를 마시고 담소를 나누는 편안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어서 고구려의 두 문화 중심지가 가진 문화적 전통이 동일하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고구려인들은 또한 성스러운 존재들이 등장하는 천상 세계를 벽화에 담아

죽음 이후 도달할 세상을 현세와 전혀 다른 성격의 곳으로도 형상화하였다. 5세기 중엽 이후 벽화에는 생활풍속과 함께 사신(四神) 또는 장식무늬가 공존하거나 장식무늬만을 주제로 한 그림이 즐겨 그려진다. 장식무늬로는 불교의 정토(淨土)를 상징하는 연꽃무늬가 자주 선택되며, 넝쿨무늬·동심원무늬·‘王’자무늬·구름무늬 등이 혼합적으로 사용되었다.

초월적 존재로서 대표적인 사신이 우리나라에 전해진 것은 삼국시대로 추정되며 고구려 무덤 벽화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5세기 무덤 벽화에서 사신은 해와 달, 별자리, 상서로운 동물, 연꽃 등과 함께 내세를 이루는 한 요소로 무덤칸 천장에 표현되었는데, 표현과 배치가 정형화되지 않아 기이하고 어색한 모습을 띠는 경우가 많고 쌍을 이뤄 나타나거나 일부가 생략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사신에 대한 인식이 체계화되면서 극복되어 점차 표현 기법이 세련되고 자연스러워져 신령스러운 동물 특유의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해 나가게 된다. 그리하여 6세기 이후에는 벽화 내에서 사신의 비중이 높아져 무덤칸 벽면 전체를 차지하는 유일한 주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는데, 이로써 단지 내세를 구성하는 하나의 일원으로서가 아니라 독자적 존재이면서 무덤의 수호자로 변모한 사신의 위상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이 시기 고구려 사회에서 음양오행(陰陽五行)과 도가 사상이 크게 유행하였음을 말해 주는 하나의 측면이기도 하다. 한편 이 시기 벽화의 주 제재로 사신이 채택되는 것은 평양 지역과 집안 지역에서 공통되나 이들을 표현하는 방식이나 제재 구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어, 두 지역 간 문화 풍토와 기질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Ⅲ. 맺음말

고구려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강성한 국력을 유지했던, 상무적 성격이 강한 국가라는 인식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힘과 용맹함이 고구려를 표현하는 대표적 특징으로 표현된다. 그러나 여러 민족과 국가가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복잡한 고대 동아시아에서 약 700여년 동안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유지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발달된 정신문화와 세련되고 수준 높은 문화 전통이 함께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중심지가 현재의 중국과 북한 지역에 속해 있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는 데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일제 강점기에 이루어진 조사 기록이기는 하나, 근대화 과정을 거치며 파괴되기 이전의 고구려 유적을 전하고 있는 유리건판 사진과 관련 자료가 오늘날 가치를 더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다.

『제13기 가야학아카데미』

- 일제강점기 유리건판에 기록된 우리문화재

- 일시 : 2016. 3. 23. ~ 6. 22. 매주 수, 오후 2시~4시 (2시간)
- 장소 : 국립김해박물관 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주제	강사	소속
1	3.23.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의 역사적 의미	이순자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책임연구원
2	3.30.	유리건판으로 보는 북한의 불교미술	권강미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3	4.6.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유리건판	김영민	국립중앙박물관 사진전문경력관
4	4.20.	사진(유리건판)으로 보는 고구려	장은정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관
5	4.27.	신라 고적조사사업	박진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
6	5.4.	가야 고적조사사업	김수환	함안박물관 학예연구사
7	5.11.	낙랑, 고구려 고적조사사업	정인성	영남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8	5.18.	백제 고적조사사업	이병호	국립미륵사지유물전시관장
9	5.25.	도리이 류조(鳥居龍藏)의 눈에 비친 한반도 선사문화	황은순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0	6.1.	일제강점기 김해 회현리 패총의 조사와 의미	이기성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적학과 교수
11	6.8.	일본의 식민지 발굴조사와 일본 역사교과서 속의 가야	이영식	인제대학교 역사고고학과 교수
12	6.15.	답사(백제문화권)	윤용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사
13	6.22.	답사(신라문화권), 수료식	김현희	국립김해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상기일정은 박물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